'치우천왕'의 맥 계승한 한민족

글 | 이종호 _ 과학칼럼니스트 mystery123@korea.com

치우천왕을 이야기하면 '동이(東夷)'가 반드시 따라다니므로 동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이'를 한자로 풀이하면 '동쪽 오랑캐'란 의미로 고대 중국인들이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이른바 중화사상에 기초하여 그들의 동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용한 별칭이다. 중국 동북부에 살던 민족들이 스스로를 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나, 중국인들에 의해 동이라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를 거론하려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중국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 전개

중국사에서 동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광의의 동이는 고대 중원의 동쪽인 산동 반도와 회하유역 일대의 종족을 가리키며 협의의 동이는 진시황제의 중국 통일로 한족(漢族)의 세력이 확대된 후를 의미한다. 광의의 동이보다 후대에 나오는 협의의 동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동쪽인 만주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민족을 총칭한다. 협의의 동이일 경우 중국의 사료에 의하면 연경, 즉 오늘의 베이징에서 조금 동쪽인 만리장성이 끝난 곳인 산해관부터 동이지역이다. 물론 동이를 종족의 칭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중국인들이 동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래된다. 중국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에는 은의 무정(기원전 1324~1266)이 동이를 정벌하느냐 마느냐로 그 가부를 점친 갑문(甲文)이 있어 동이족이 무정시대 이전에 중국의 동북방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좌전(左傳)'에 의할 경우 상(商)의 멸망은 결국 동이족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갑골문, 청동기 명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상은 기원전 11세기경 주족(周族)이 중심된 여러 종족의 연맹 세력에 의해 멸망하고 서주시대가 열렸다. 동이는 끊임없이 중국 역사 속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공(周公) 단(旦)은 어린 성왕을 대신하여 섭정하였다. 단은 동이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벌여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주왕실의 친척과 공신을 대규모로 분봉하였다. 이 때 봉해진 나라가 산동과 강소 지역의 노, 제, 초 등의 나라이다. 노나라에 살았던 공자와 맹자 등을 동이족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후 서주시대의 동이는 그들 지역에 분봉된 제후국들과 치열한 병탈의 과정을 겪었다. 서주시대에 주의 제후국과 토착민 동이 사이에 있었던 대표적인 대결이 제(齊)와 래이(萊夷), 주(周)와 회이(淮夷)와의 전쟁이다. 래이는 중국 동부 연해 지역에 거주하던 동이족의 한 지파로서 산동에 거주했던 토착민이며 회이란 준수 유역에 위치했던 종족이다.

제와 혈전을 벌였던 래이는 제나라 영공(靈公) 15년에 완전히 멸망하였다. 회이도 노와 대립적인 관계에서 점점 밀접한 관계로 변화되며 동화되었다. 춘추시대에는 서이(徐夷)가 등장하는데 서이는 산동에 존재하던 동이 중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였다.

서이가 한민족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은 서언왕의 설화가 고구려 주몽의 난생설화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는 궁인이 임신하여 알을 낳았으므로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강가에 버렸더니 독고모(獨孤母)의 개가 물고 들어왔다. 그가 알을 따뜻하게 하였더니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 서언왕이라는 내용이다.

후한서에 "서주 강왕 때 서이가 스스로 왕임을 천명했다. 그는 구이를 거느리고 종주를 쳐서 황하의 상류까지 이르렀으며 국토가 사방 500리에 달했고 조회하는 나라가 36국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을 볼 때 당시에 매우 강성한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임승국은 서

언왕이 주나라 목왕과 일대 격전을 벌였는데, 이 당시 서언왕이 할거한 곳은 회수와 대산 사이의 회대 지역으로 중원 대륙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라고 설명했다.

진시황제 중국 통일로 중국 민족으로 흡수

중국 문헌에서 동이는 '이', '동북이', '구이', '구려', '사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동이보다 이가 먼저 일반화된 것은 이가 어떤 특정한 민족을 가리킨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이질집단을 통틀어 부른 명칭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들은 문화가 높은 지역을 '하(夏)', 문화가 높은 사람 혹은 종족을 '화(華)'라 칭하고 화하(華夏)가 합해져서 중국이라 칭했다.

여하튼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산동의 동이들은 점점 중국인들에게 밀려 제후국에 예속되면서 그들의 고유의 문화는 중국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을 완성시킨 사람이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이다. 그는 중국 천하를 통일시켜 전국시대를 마감시키면서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이전까지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통일 제국을 세웠다.

진시황제가 통일한 중국 영역은 동으로는 조선, 서로는 임조 · 강중, 남으로는 북향호, 북으로는 황하의 북단, 동북은 요동과 국경을 접하는 거대한 영토로 오늘날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서주시대부터 중국인들에게 동화하기 시작한 중국 대륙 안의 동이들은 진나라의 출현으로 중국 민족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동이족이라고 추정한다. 요임금도 순과 같은 산동 출신인데다 둘이 한 동네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이 능력 부족이므로 치수에 능한 순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토록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자가 '서경'에서 "순임금은 중국에는 전혀 없던 신명(神明)에 제찬보본하는 예식을 마련했다"고 기술했고, 맹자도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다"라고 썼다.

공자와 맹자가 말하는 인의사상의 원천이 요순이고 이들이 동이라면 공자와 맹자가 이상으로 삼은 국가는 동이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유승국은 중국의 '산해경'에서 조선이 군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조선은 중국 요 · 순시대와 은 · 주시대에 중국 본토의 일부 지역과 만주, 한반도 전역에서 활약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이 주력이 된 한(韓)족과 주가 주력이 된 한(漢)족간에 대립이 생겼고 결론적으로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제압했다. 당연히 주나라는 동이족을 정복했으므로 동이족이 주력인 은나라를 한(漢)족의 역사로 간주했는데 공자도 그 설명에 동조했다. 공자는 '춘추'에서 은나라와 동이족을 밀어내고 중국의 정통은 동이가 아니라 한(漢)족 중심의 주나라라고 주장한 것이다.

난징의 공자묘 야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매우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 공자는 자기의 주장이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이(九夷, 조선)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제자들이 공자의 말에 "고루하면 어쩌겠느냐"고 질문하자 "조선은 군자불사지국"이라고 말하면서

탁록전투. 치우천왕은 기원전 2700년경 중국의 황제(黃帝)와 중원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탁록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중국 한족이 이민족과 벌인 최초의 전투로 추정한다(김산호 그림).

조선이 고루한 곳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단국대학교의 기수연 박사는 한대(漢代) 이후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동이를 그 이전 시기 산동 일대에서 존재했던 동이와 같은 계보로 묶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하와 은나라를 동이족이 원류인 한민족이 세웠고 한자도 동이가 살던 산동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자 역시 '한민족이 만든 것과 다름 아니다' 라는 비약도 있지만 이들은 후대에 중국에 동화되어 중국인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이들을 한민족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한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공자와 맹자도 동이이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동이가 동쪽의 오랑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의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夷)자는 원래 활은 평상시에 활줄을 빼놓았다가 유사시에 걸어서 쏘는 생활을 한 사람들의 상형자라는 것이다.

중국 동북방으로 이동 한민족 근간 이뤄

근래 중국학자들이 동이족에 대해 설명하는 요지는 분명하다. 고대 중원지방에 살던 동이족이 치우천왕 때는 물론 주나라와 후대인 진시황에게 밀려 남 ·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쪽으로 간 부류는 부여인 등 고대 한국인의 선조가 되었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운남성이나 귀주로 가서 오늘날 묘족(苗族) 또는 요족(瑤族)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한국 학자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 주었던 신라말 최치원의 글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삼국사기 '최치원전' 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시에는 강병 백만으로, 남으로는 오월(吳越)을 침해하고 북으로 연(燕) · 제(齊) · 노(魯)를 위협하여 중국의 거적(巨賊)이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남쪽으로 침범했다는 오, 월은 절강성 일대인데 최치원의 짧은 이 말 한마디가 그 동안 잊혀졌던 한국의 과거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우천왕과 헌원이 탁록에서 전투하여 치우천왕이 패배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치우천왕이 패배했기 때문에 동이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원의 포로가 되고 다른 부류는 도망쳤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포로가 된 많은 동이족들이 중국의 화하족에 동화되었을 것은 이해가 되며 중국이 강조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이 점을 기수연 박사는 분명히 했다. 한대(漢代) 이후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동이를 그 이전 시기 산동 일대에서 존재했던 동이와 같은 계보로 묶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동이족이 중국의 화하족과 대립하는 상대적인 개념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천왕이 헌원에게 패배한 이후 상당수의 동이족들이 화하족에 흡수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포로가 되지 않고 탈출한 사람들은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동이족의 전통과 풍습을 계속 유지해 내려왔다고 추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민이 강조하는 것으로 한민족은 헌원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하족에 동화되지 않고 계속 동이족으로 내려와 현재의 한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윤명철 박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동이가 한민족의 근간이 된 예맥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한족과 대립하면서 문화전통을 유지 발전시켰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치우천왕을 바라보는 각도가 중국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치우천왕이 중국의 헌원에게 패배한 후 일부 부류는 중국에 동화되었지만 한민족은 동화되지 않은 채 그들의 문화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치우천왕의 맥을 현재까지 계승하고 있는 것은 한민족이다."

그런데 동이족이 헌원에게 패배하면서 도망갈 때 반드시 중국의 동북방으로만 진로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이족인 은나라가 주나라에 패배할 때도 같은 현상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북방의 동이족 후예인 한민족과 중국 남부의 월족이 같은 부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월족이 동이족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한민족과 동일 선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ST